

## 인공지능 시대, 음악교육의 정체성과 교사의 역할 Era of AI, The Identity of Music Education and the Role of the Teacher

윤관기\*  
Gwan-Ki Yun

### 시작하며

전국적으로 다양한 학회에서 슬로건으로 삼았던 ‘인공지능 시대,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이제 조금씩 교과와 교육의 실질적 핵심 주체로 옮겨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제21회 한국음악교육학회 콜로키움은 2026년 5월 30일 토요일에 조선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인공지능 시대, 음악교육의 정체성과 교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마침, 올해는 한국음악교육학회 창립 70주년으로 조선대학교 개교 80주년과 함께 맞물려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으며 본래 콜로키움의 취지를 되살려 모처럼 지방에서 진행하였다. 한국음악교육학회 회장이신 최진호 중앙대학교 교수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공동주최인 조선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장이신 김지현 교수님의 이어진 개회사로 콜로키움이 시작되었다. 금번 콜로키움은 발표자를 추가로 신청받아 진행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콜로키움보다 주제 발표와 자유로운 질문으로 풍성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 주제발표 1:

## AI 시대 음악교육 소재로서 음악 작품과 그 활용

콜로키움의 시작을 알려주신 첫 번째 발표는 광주교육대학교 주대창 교수가 진행하였다. 인공지능 시대 음악 생활은 전통적 의미의 음악 작품 개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음악의 실체적 내용으로 음악 작품을 교육의 중심체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음악이 교육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됨으로써 음악교육의 축을 유지하고, 작품 개념의 전향

---

\* 광주교육대학교 부교수

적 설정을 통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적응하는 보편적 음악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안하였다. 인공지능 시대에서 음악 작품의 교육적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음악 개념에 대한 성찰과 미적 판단의 중심에서 음악 작품을 조망하고, 인공지능이 음악을 활용할 수 있는 주체로의 변화를 통해 전통적 방식의 음악 활동에 더하여 인공지능을 음악적으로 성장시키고 음악의 영역을 확장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었다.

## 주제발표 2: AI 시대, 음악교사 역할에 관한 개념적 고찰과 실천적 제언

두 번째 발표는 서울대학교 김경화 강사의 진행으로 음악교육의 실천을 다룬 크리스 히긴스(Chris Higgins)의 글을 고찰하고, 학습 중심 시대를 재고하는 클라우스 몰렌하우어(Klaus Mollenhauer)의 교육철학 이론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음악 교사의 역할에 대한 실천적 제언을 마련하는 연구를 소개하였다. 인공지능을 기반한 교수·학습의 상황에서 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를 넘어 교사가 필요 없는 시대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급진적인 시대라는 점에서 앞으로 음악 교과에서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관계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인공지능 시대 음악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 교사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음악 교수·학습 내용을 음악적 텍스트 및 활동으로 재구성하는 제시자의 역할, 음악적 과정에 관한 기술적 피드백과 결과물에 관한 미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포괄적 촉진자의 역할, 그리고 교사 자신의 음악적 경험을 공유하고 미적 안목을 통한 새로운 탐색 활동의 욕구를 키워줄 수 있는 동반적 경험자의 역할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음악 교사의 핵심 역할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 주제발표 3: 평가를 넘어 학생을 보다: LLM AI 서술형 평가도구로 살펴보는 음악교육 개별화 성장 피드백 방안

잠시 휴식을 갖고 난 후에 세 번째 발표에서는 한국교원대학교 신기호 박사의 중등 음악교육 과정에서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인공지능 서술형 평가도구를 활용한 개별화 성장 피드백 방안을 탐색하는 내용이 소개되었다. 실제 학교는 음악교육 맥락에서 평가는 쉽지 않으며 교사가 다수의 학생이 작성한 서술형 답안을 읽고 개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지만, 수행평가와 과정 중심 평가의 확대에 인한 방대한 평가물은

교사로 하여금 학생별로 구체적 피드백 제공은 상당한 시간과 인지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학교 현장의 현실적 내용을 진단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서술형 평가도구는 교사가 제공하는 피드백 생성을 위한 보조도구로 평가의 자동화가 아닌 학생을 더 세밀하게 이해하기 위한 평가 정보의 확장이라는 내용을 시사하였다.

## 주제발표 4: AI를 활용한 음악 수업에서 교사의 수업 역량 탐색: 프로젝트형 초등 음악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마지막 발표는 광주 효동초등학교 김은주 교사가 진행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디지털 기반 학습 시대의 일상화로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 전반에 걸쳐 교수학습 방식을 다양하게 변화시켰으며, 음악 수업의 설계와 실천 과정에서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생의 삶과 연계된 맥락 속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활동, 학습 활동 전반에 대한 성찰 과정을 포함한 초등학교 수업 구현 과정을 소개하였다. 이를 위해 수업 설계자이자 실천자인 교사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동시에 교과와 본질을 살리는 수업을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수업 역량을 탐색하는 시간이었다. 연구 내용을 통해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교사는 단순히 수동적 역할을 넘어 학생의 경험과 삶을 반영한 학습 맥락을 설계하고, 창작 과정에서의 사고와 표현을 촉진하며, 협업과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역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마무리하며

한국음악교육학회와 조선대학교 공동으로 개최된 제21회 콜로키움은 인공지능 시대에 ‘음악교육의 정체성’과 ‘교사의 역할’에 대해 여러 연구자의 깊이 있는 발표와 참석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는 자리였다. 인공지능 시대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를 넘어 학습의 설계자이자 정서적 안내자로서 음악 교사의 본질을 재조명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간 한국음악교육학회 콜로키움은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지속가능성, 다양성 및 포용성을 바탕으로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콜로키움 역시 이러한 취지를 충실히 살려 학술적 담론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결실을 맺은 자리였다.